

歷 史 紀 行

중화패권주의(中華霸權主義)-공존인가 지배인가?(상)

정헌택/자유기고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서 그 당시 마오쩌둥(모택동)(혁명제1세대, 1949~1976)의 닥트린은 글자그대로 혁명이었다. 즉 장개석의 중화민국정부를 대만으로 퇴출시키고, 1959년의 대약진운동, 1966에서 10년간 계속된 문화대혁명등의 세대였다.

덩샤오핑(등소평)의 제2세대는(1976~1990) 개혁개방(까이꺼 까이팡改革開放)과 도강양회(따오 광 양 회이, 韜光養晦)로 요약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도입과 동부연해지역의 先富論이 개시된 시기이다.

도강양회란 말은, 잘 알다시피 어둠속에서 칼날을 숨기고 힘을 기룬다라는 의미다.

장쩌민(강택민)의 혁명제3세대는(1990~2003) 소위 민족부흥을 구호로 내걸었다. WTO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및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았으며 소위 三个代表論이라 하여 지식분자및 도지사본가들도 공산당에 가입시켰다.

혁명 제4세대인 후진타오(호금도)는 2003

년 3월부터 부국강병(富國強兵), 이민위본(以民爲本), 화평굴기(和平屈起), 화평발전(和平發展), 화해사회(和諧社會-조화사회) 등의 정치구호와 1978년 개혁개방이래 지난 25년간 연평균 9.6%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외자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으며, 석유, 철강석등 전략적 원자재등을 싹쓸이하고 있다. 2005년 현재로 중국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GDP(국내총생산) 2조3천억\$로써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런속도로 발전하면 2020년이전에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한다.

2006년 3월말기준으로 외화보유고가 8,537억\$로 세계 제1위이고, 일본은 8,501억\$로 2위이고, 한국은 고작 2,106억\$이라고 한다.

철강생산량 역시 2005년에 3억5천만톤으로 세계1위로 마크했고 2003년에 유인우주선(중국인 표현으로 中國航天) 발사에 성공하고 2005년 10월 12에는 제2차 유인우주선을 발사했다.

조만간 달에 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2006년 5월 20일에 유명한 三峽댐(중국어 로 썬샤빠 또는 삼협水庫)의 준공식을 가졌다. 작년 가을 현지 댐 주변을 지나면서 들은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실 금년 5월 20일의 준공은 완전한 준공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부분의 계속공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 그러나 1993년부터 13년간의 대공사로 약240억\$의 공사비(우리돈 25조원 상당)를 투입하여 저수높이 185m, 담수용량 393억톤(소양호의 14배), 70만 KWH수력발전기 26기로 총발전시설용량 1,820만KWH의 발전량등 제2의 만리장성의 Project(중국어 로 工程)라고 하고 의창에서 중경까지의 萬 Ton급 내륙운송이 가능해져 이를 황금의 물길이라 사랑하고 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768억\$의 수출을 달성해서 일본에 이어(1005억\$) 제2의 對中國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할만큼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교역국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고 후발국인 중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미국의 패권(Pax Americana)에 당당히 맞서면서 국제사회를 마구 누비게 된 그 저력을 다시한번 보자.

중국정치권에는 미국의 패권을 인정하지는 대미온건파와 미국패권에 과감히 대항, 拮抗(Rival)으로 하자는 강경파가 있다. 작은거인,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한 등소평은 대미 온건론을 주도했고 또한 그의 정략이 중국의 경제개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2040년까지는 미국에 대해 온건정책을 펴면서 그야말로 도강양회(어둠속에 힘을

기루어서)의 국가책략을 통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국력배양을 거쳐 그때를 기다리자고 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6일에 제1차 원자폭탄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 6월 17일에는 수소폭탄실험에도 성공했다.

그리고 1970년 4월 24일에 최초로 인공위성발사에 성공했고 또 1970년 11월 21일에 UN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중국대표권을 인정받아 새로운 세계의 패자로서 국제사회에 군림하고 있다. 일본과 동중국해의 조어도 부근 해저석유자원을 놓고 큰 소리 땅땅치고 마치 일본을 손오공의 손바닥위에 놓고 가지고 논다.

우리나라와는 1992년 8월 19일부로 정식 국교를 수립했다.

1979년 1월 1일부로 미국과 중국이 국교수립을 했스니 우리나라는 12년 뒤에서 겨우 국교를 재개했다. 가장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수천년간의 이웃국가였으며 인적 물적교류가 제일 빈번한 나라와의 국교가 그렇게 뒤졌던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때부터 1950년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중국본토와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가 이렇게 늦게서 미국과 일본의 국교재개를 뒤따라 허겁지겁 정식국교를 수립했스나 요즘하루 왕래인구가 1일근 1만명에 육박하는, 중국의 제조업체 투자 제1위국이 되도록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했고 인적교류역시 빈번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정부(사회과학원)는 西北工程(신강성과 서장성등의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정책적으로 압살코자한 Project)과 斷代

工程(그들의 5천년 역사는 夏,殷,周시대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 中華文明探源工程의 정책적 연구과제로써 2005년 4월5일부터 전설상의 시조인 황제를 중국의 개국시조(우리나라로 치자면 단군왕검과 같다)로 하여 제사를 모시는 국가행사로 공식화 하고, 중국영토내의 46개 민족은 모두 중화민족이라고 하여 중화권의 대통합 내지 중화중심주의 사상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소위 2002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東北工程 역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옛날 중국의 변방 일개 소수민족역사로써 중화민족의 한 역사에 내포되고 또한 나아가서 최근들어 동북3성(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의 동북진흥공정(동북진흥프로젝트)과 요령성 연변의 220만㎡의 부지에 건설하기로한 조선족 문화단지, 공칭 진달래 문화단지등은 내밀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조선족 흡수및 만약의 경우 북한정권이 와해될 경우 소위 동북4성으로써 대동강 이북지역을 그들의 세력권으로 확보코자 하는 책동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간단히 말해서 동북공정이나 조선족문화단지공정은 中華文化中心主義思想基調하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그들의 下位概念으로 보고 흡수군림하려는 저의가 엄엄하게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단군기원 즉 중국의 당요(唐堯)무진년(BC2333)이래 중국측으로 보면 요임금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과 싫던 좋든 이웃국가로써 그들의 선진문화를 수입해왔고 정치적 지배도 받아왔습니 사실이다.

우리는 좁은 강역, 적은 인구, 문화의 후

진국으로써 약소국가의 피치못할 비애를 감내해야 했다.

우리가 아무리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니 자주독립이니 하고 떠들어봐도, 중국인들은 돌아서서 냉소하며 우리나라를 “중국역대왕조의 지배하에서 2천년간 조공(朝貢)과 책봉(冊封), 事大와 自小, 교린(交隣)을 해 왔던 변방의 소국”으로 폄하하고 언제나 우리를 하대(下待)하고 있습니 부인치 못할 사실이다. 내가 생래의 습벽으로 성균관이나 향교출입이 빈번했는데 아직도 성균관 유생들이나 이 분야의 대학교수들조차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고 그 옛날 중국인들이 칭송했다라고 자찬(自讚)하고 있다. 현금의 중국대륙 식자층중에서 이 어휘를 인정하거나 알아주는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미한 나의 중국인 인맥을 통해 알아보아도 아는사람이나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각설하고

나의 사상적, 인격적 뼈대와 자양을 공급해준 유가사상 내지 유학은 중국에서 건너왔다.

그리하여 나의 언행이나 사유는 다분히 고답적이고 유가적 기준을 따를뿐만 아니라 유가의 성현을 숭모하기에 따라서 문화의 종주국인 중국을 선호하여 국교수립이후 거의 매달 중국을 제집 같이 드나들었다.

국교수립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지리등 각방면에 아마추어으로써 상당수준 깊게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기 약5년간은 북경이나 남경, 서

안, 곡부등을 찾아 그들의 찬란했던 고대문화와 특히 孔孟의 聖學의 始原인 곡부 聖地를 참배할적의 존경심과 경외심 및 부러운 생각이 충만했으나 그후부터는 중국에 관한 상당수준의 전문적 안목을 갖고 분석과 비판의식이 서서히 배양되면서는 점차 親中國意識이 퇴색 내지 변질되어가고 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중국의 속내를 과거역사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때로는 연혁적으로 나뉘되로 추리해가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추동(霸權推動)행위를 어렵뜻이나마 알게되었다.

어떤 책에 표현하기를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육교(韓半島 陸橋)의 소국인 우리나라를 일본인들은 “열도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대륙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라 하고 소련인들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막는 수갑”이라고 하고 미국인들은 “일본, 태평양의 군사력에 대한 방어쇠”라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함축적으로 표시했다.

중국의 산동성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로써 아무리 경제적으로 약 10년정도(?) 앞서고 국민생활수준이 다소 선진화, 문명화되었다라고 자위해보지만 우리는 결코 중국의 무진장한 국력개발이나 세계패권을 노리는 전략을 간과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되며 지난역사와 같은 어리쉬은 전철은 다시는 밟지 않아야 한다.

최근 B씨가 쓴 한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저서에서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한번 옮겨본다.

“미국은 한국내에서 反日親中勢力, 反美세

력이 강화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어가는것을 두려워 한다.

주한미군이 없는 통일한국은 초기에는 아직까지 잔존하는 반일감정에 의해 일본과는 거리감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내에 편입되어가거나 중국의 권위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수천년동안의 중국문화 및 세력권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은 慣性의 힘(The force of Inertia)으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미국정책은 중국의 구심력을 상쇄할 일본이 필요하고 일본과 한국의 관계개선 역시 미국의 국익에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약 2020년까지는 경제면이나 군사력면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자체적 힘을 비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측으로써는 소위 한반도전체를 장기적으로 중국의 우호세력권으로 확보함에 있어서 북한체제가 자체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우선은 평화로운 분단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건설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영향권이 확실히 한반도에 확보될때까지는 당분간 한반도의 분단 안정화 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혈맹관계로써 1940년 중일전쟁당시 약 5만명의 조선족 출신 紅軍(공산 모택동군)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도와주었고 (소위 연안파) 한국전쟁때는 수십만이 그들 말대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에 투입되어 술한 중국 청년들이 전사

했다.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하여 매년 약 1백만톤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유류 역시 연50만톤수준을 북한에 무상내지 정책적 저가로 공급해주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을 중국의 소위 동북 제4성으로 보고 결속 내지 종속관계를 서서히 만들고 있다.

북핵 관련 6자회담에서 중국은 이 회담의 주도국으로 북한의 회담자세를 사실상 유도하고 있는 그들의 속셈이 우리는 충분히 간파할수 있다.

우리강토는 타의에 의해서 친해양세력(親海洋勢力)과 친대륙세력(親大陸勢力)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촉발된 문화의 충돌지역(衝突地域)이며 양대세력의 단층선(斷層線)에 걸쳐 앉은 반도의 단절국(斷絶國)이 된 슬픈 운명에 처해있고, 다시말해서 미국세력과 중국세력사이에서 방황(彷徨)하는 분열국(分裂國)이 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우리의 위상을 아마추어로써 겨우 피상적으로 체감하는 나의 처지이지만, 나름되로 단군의 男孫으로, 또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조국의 한 남아로써, 중국의 변화하는 양태를 예리한 시각과 경계적 應戰자세로 보게 되었다. 다시는 지난날의 굴욕스러운 변국으로써의 치욕을 받지않기 위한 심사였다.

각설하고 :

어릴때부터 내 몸에 體化된 孔孟의 숭모사상 때문에 나이 이순(耳順)에 들어 지금도 갈수록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지의 행사에 마음이 끌리고 발길이 스스로 행해

진다.

또한 중국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자주가게된다.

연전에 한국대학에 유학은 중국인들을 앞세워 공자님의 주유천하했던 유적지를 답사한적이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素王이자 大先師인 孔夫子는 BC551년 9월 28일 (생년월일에 대하여 역사문헌상 양설이 있다) 노나라 양공때에 지금의 산동성 창평현 추읍에서 출생하시어, 공자 춘추56세되던 BC496년부터 자기의 사상을 (仁義사상, 王道政治) 받아 줄 제후를 찾아 천하를 周遊하시다가 13년간의 국외방황을 거쳐 68세되던 BC484년 노나라 에공때 귀국하신다. 2500여년이 흐른 지금, 동방의 한 불품없는 유생이 아무도 격려해주거나 돈한푼 생기지 않는 고난의 탐방여정에 오르기로 했다. 관계기록들을 미리 탐색하여 지금의 산동성, 하남성에 분포된 공자의 방문지역을 두루 편력해 보았다.

곡부시 남쪽 약 30Km떨어진 산동성 추성시의 역산에 올라가 그 옛날 공자가 가로되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맹자진심상)”

- 국역하면, “공자가 동산에 올라(지금의 역산의 古地名) 노나라가 적거나, 또한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가 적구나”, 해서 동방의 嶧山子(본인) 역시 쾌재하여 曰 “중국땅도 좁고 황량하구나!”

그 역산에 몸소 올라도 보고 서주시대의 태공망 여상(강태공)이 최초로 영지를 받은 임치에는 수차례 답사를 했고, 공자재세

시 3개월 동안이나 고기맛을 잊고 순임금의 미덕을 찬미하는 음악-“소”에 탐닉했다라는 치박에도 몇차례 둘러보았다.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라는 산동성 가상이란 곳에도 가보고, 공자가 春秋를 쓰기 시작하게된 동기 즉 기린이 잡힌곳인 산동성 거야와, 그 이웃한 상구, 하택등지도 둘러보았다.

공자가 양호로 인하여 광땅에서 수난을 당했다라는 논어의 기록대로 하남성 장원현에서 약간 떨어진 태향제라는 곳도 둘러보고 상구근처에서 공자를 죽이고자한 환태와의 만남곳도 둘러보았다.

공자가 춘추를 쓴 곳인 곡부의 동남쪽에 있는 식수촌도 둘러보았다.

이와같이 논어나 맹자에 나오는 지명을 뜯고 뜯어 찾아온 본 취지는 내가 무슨 공자연구의 열혈학도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孔門의 仁사상이 잉태된 역사적 지리적 환경을 직접 현지, 답사해보자라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중국인의 원형질 즉 중화사상은 과연 동남아 주변각국의 패자로서 군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천하 大同思想으로 전 인류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儒家 價值觀으로 공존공생하려는 것인지 나름되로 탐색해 볼려는 어리섞고도 소박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주유천하를 흥내낸 것이다.

무더운 여름방학이나, 살을에는 겨울철 광막한 산동성과 하남성의 별판을 삭풍을 무릅쓰고 무던히도 돌아다녀보았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중국인이 원형질은(속셈) 알수록 더욱 그 속내(黑心)를 간파하기 어렵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기에 내머리속에는 날이갈수록 지난 1300여년전 백제와 고구려가 당나라군사에 의하여 함락될때부터 시작해서 청나라의 병자호란때까지 우리는 얼마나 중국인들(몽고족과 만주족 포함)로부터 필설로 표현할수없는 치욕적 압박과 착취를 당해왔음을 상기하면 할수록 중국인들의 그 무표정한 얼굴속에 감추어진 음흉하고 노회한 술수를 조금은 읽을수 있을것 같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중화패권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의 조상이 가혹한 시련과 감내하기 어려운 치욕을 당했던가를 지배자인 그들이(북경대학 한국학 연구중심)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자.

1. 당의 내침과 고구려 패망.

(前略).....당나라에서는 즉시 우호위대장군 계필하력을 요동도 안무대사로 임명하고, 현성을 우무위장군으로 임명하여 향도로 나서게 하고, 또 우금오위 장군 방동선, 영주 도독 고간을 행군총관으로 임명하고 좌무위 장군 설인귀, 좌감문위장군 이근형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토벌토록 했다. 12월 당나라는 또 원로장군 이적을 요동도 행군대총관으로 임명하여 수륙대군을 통솔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다. “하북각주의 세금과 조세는 다 요동으로 운송하여 군용으로 쓴다”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고구려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전략하고).....당나라는 고구려지역에 도

독부9개를 설치하고 주42개와 현100개를 설치했다.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통치케 했다. 현지 추장중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둑, 자사, 헌령을 임명했고, 중국인과 함께 관리에 참여토록 했다. 우위대장군 설인귀를 감교안동도호에 임명하고 군사2만을 통솔하여 그 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결국 고구려의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AD668)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하)편의 기록에는 :

당나라 고종은 서기 669년에 붙잡아간 고구려 백성 38,300호를 당시에는 사람도 살고있지 않은 중국의 남쪽지방인 강희, 산남, 경서등지로 보내 살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고구려가 동양의 강자라 당나라가 그간 여러번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번번히 참패를 해 이를 두려워한 당나라는 신라의 도움을 얻어 겨우 고구려를 무너뜨린후 많은 수의 고구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중국 남부지역으로 끌고가 버림으로써 이들이 다시 고구려로 되돌아가 고구려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당나라의 정책이었다. 하여튼 당시의 중국측 기록은 우리측 기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 중국측 기록을 적어본다.

총장 2년(당나라 고종의 연호, 668년)에 고구려 백성 3만명을 강희와 산남으로 이주시켰다.

보장왕은 또 말갈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일이 일어나지전에 당 고종은 그를 소환하여 공주로 추방하고 그 백성들을 하남, 농우등지에 나누어 살게 했다.

- 고구려 백성 38,300호 대략 20만명으로 추산
- 당 고종은 3만명 상당을 강희, 산남, 경서 지방으로 보낸다.
- 고구려에서 검모잠, 안승, 대증상, 대조영 등이 고구려 부흥운동
- 당은 억류되어 있는 보장왕을 무마하려다가 귀양보낸다.

당시 고구려 전호수가 69만호였으므로 5.5%가 끌려갔다.

지금의 강남지역, 하남지역, 산서성지역, 감숙성지역이다.

고구려는 비록 멸망했지만 고구려인들의 구국투쟁은 계속되었다. 총장2년 4월 고구려민중에 배반자가 많았는데 고구려인 3만8천2백호를 포로로 잡아 강희이남(양자강과 회하이남)과 산남(산서성 남쪽) 경서(섬서성 서쪽과 감숙성 일대)등지의 여러주로 이주시켰다. 빈약자만 안동에 남게했다.

또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 장수 이적(英公:李勣)은 고구려 보장왕과 왕자 복남, 덕남, 대신등 20여 만명의 포로를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가는데 신라측에서는 각간 김인문과 대아찬 조주가 이적을 따라가게 되고 인태, 의복, 수세, 천광, 흥원도 수행하였다. (다음호에 계속)